

여름이 가면 가을이오겠지

벌써 7월이다. 동부 필라델피아에 살 때에는 9월 첫 주가 되면 긴팔을 입어야 했었는데 그것을 생각하면 여름도 곧 지나간다. 우리가 사는 이곳의 올해 여름은 아직 그리 덥지도 않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 여름의 하반기로 곧 접어들고 4개월이 지나면 크리스마스라고 들썩일 것이다. 그렇게 인생은 흘러가는가 보다. 그래서 그런지 죽기 직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몇 가지 중 하나가 “해보고 싶었던 것을 나중에 한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하지 못한 것들”이라고 한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인생의 시간이 하도 빨리 지나가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20년 후에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고 있을까? 궁금해진다. 과연 내가 가진 전부를 다 사용하고 갈 것인가? 아니면 나름대로 아끼고 아끼다가 아무것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 때가 되어서 죽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러면 가장 알뜰하게 살다가 가는 방법은 없을까? 그것을 안다면 조금 더 밝고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을 멀리 내다 볼 수 없게 하셨다. 사도바울도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깨달았던 깨달음은 고린도후서 전반에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하심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 하도록 주신 축복이라고 고백한다.

만일 내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있다면 아마도 내가 내 인생의 조정관을 내가 잡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최선을 다하여 살 것이다. 하지만 그 최선은 하나님의 뜻과는 먼 거리에 있을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생을 멀리 볼 수 없고 알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만드신 축복이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서로에게 물어가며 행복을 추구하지만 결국에는 그 때가 되어 후회와 두려움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깊은 신앙의 성숙으로 인도하신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지만 허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하는 그리스도의 계절들인 것이다.

하나님은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시편 103편 14-15절)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인생이 지나가는 것이 맞다. 그래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주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총에 맞아 죽는 것을 보았다. 슬픈 일이지만 그 사람 개인의 삶을 자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었다면 과연 의미 있는 정치인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나는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말하고 있다. 과연 준비된 죽음이었을까?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올 것이다.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다. 추운 시간을 위하여 긴팔 옷을 준비하는 것과 같이 영적으로 추워질 수 있는 상상하지 못할 세상의 온도를 영적으로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만 바라보는 성도의 삶을 살 때에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 전부를 다 태워서 드리고자 할 때에 그 인생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